

# HD현대중공업 공동대표 체제 돌입 이상균 부회장, 그룹 조선사업 총괄

## HD현대 사장단 인사

조민수·한주석·박찬혁 사장 승진  
조선업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  
DC용 엔진·SMR 등 신사업 박차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조민수  
HD현대중공업 사장

HD현대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에게 그룹 조선사업 전반의 지휘를 맡기며 계열사 간 결속을 강화한다. 조선업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안전총괄 대표를 새로 내세우고 데이터센터용 엔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사업에도 힘을 싣는 인사다.

HD현대는 이상균 부회장을 조선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상호 등 조선 계열사의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회사별 대응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업무 조정 등을 맡는다. 데이터센터용 엔진발전과 SM

R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인 조민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안전총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조 신임 사장은 1966년생으로 입사 이후 줄곧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 전문가다.

이번 인사로 HD현대중공업은 이상균 총괄 부회장과 조민수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금석호 사장은 경영지원 총괄 사장 역할에 집중한다.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한주석 부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박찬혁 부사장도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 신임 사장은 1994년 HD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 입사해 33년간 선박용 엔진 설계와 연구개발(R&D), 생산, 영업 등을 거쳤다. 향후 HD현대중공업이 8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데이터센터용 발전 엔진 공장 증설과 HD현대마린엔진·HD현대엔진 간 시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박 신임 사장은 건설기계 생산·품질 분야 전문가로 유럽과 중국 등 해외법인장을 거쳐 글로벌생산본부장과 품질생산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 HD현대사이트솔루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룹의 핵심사업인 조선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에는 후속 임원 인사와 경영전략 회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가운데)이 6일(현지 시각) 포스코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스코그룹, 아르헨티나 리튬사업 속도낸다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

2033년 10만t 생산체제 구축 목표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생산능력을 5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현지 리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공정과 연계해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33년까지 염수리튬 생산능력을 1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에서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총 9억5400만달러를 투자한 2공장 상공정은 연간 2만3000톤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갖췄다. 기존 1공장 2만5000톤을 더하면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능력은 연간 4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2공장에서 생산한 탄산리튬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전남 울촌산업단지 하공정과 연계한다. 이를 연간 2만5000톤 규모의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

면 기존 1공장을 포함해 총 5만톤 규모의 염수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갖출게 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에 이르게 돼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생산과 수익으로 연결하고 국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공장의 초기 정상 가동과 함께 3·4공장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각각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확보해 오는 2033년 염수리튬 1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준공식 당일 살타·카타마르카 주정부와 3·4공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주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 LG전자, 올해 매출 70조·영업익 4조 돌파

3분기 매출 23.8조, 영업익 7818억  
생활가전·전장 사업 안정적 수익

LG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간 가운데 TV 사업의 수익성 개선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3조8270억원, 영업이익 7818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13.5% 증가한 규모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1조3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55.9% 늘어난 4조346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의 3분기 누적 매출이 70조원을 넘고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주력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데다 글로벌 사우스와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각각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와 B2B 영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캐시카우 역할을 이어갔다. TV 사업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

LG전자는 전사적인 원가구조 개선과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물류비와 재료비, 고정비 등의 상승 부담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 생활가전(HS) 사업은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갔다. 가전 구독과 온라인, B2B 사업 비중 확대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제조와 물류 등 운영 효율을 높이며 견조한 수익구조를 유지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신형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고 경쟁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흑자 기조도 이어갔다. webOS 플랫폼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했다.

전장(VS) 사업은 기존 수주잔고가 매출로 안정적으로 전환되며 성장세를 이

어갔다.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에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개선돼 B2B 분야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냉난방공조(ES)사업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다만 신규 생산능력 확보와 신사업 인력 충원 등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LG전자는 주력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과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외 생산거점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서울 양재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경남 창원에서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양산 인프라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말 실적설명회를 열고 3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세부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LS일렉트릭, 대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포모사플라스틱그룹 JV 설립 계약

LS일렉트릭이 대만 최대 석유화학그룹인 포모사플라스틱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전력기기 공급 중심의 현지 사업을 전력 인프라 수주로 확대한다. 현지 생산 기반과 설계·조달·시공(EPC)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환경 전력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전력망 투자 수요에 대응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6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포모사플라스틱그룹 계열사인 아플라스틱, KHI와 대만 전력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합작법인 이름은 ‘남아나성(南亞樂星)’으로, LS일렉트릭이 50%, 난아플라스틱이 40%, KHI가 10%를 출자한다.

합작법인은 대만 전력사업 수주부터 설계와 기술 대응까지 현지에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제조·설계 기술에 난아플라스틱의 생산 기반과 EPC 네트워크를 결합해 현지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지난해 3월 체결한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력기기 공급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을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엔지니어링과 전력 인프라 수주 사업으로 넓힌다.

현지 사업 기반을 제공하는 난아플라스틱은 석유화학과 전자소재·전자제품을



LS일렉트릭은 지난 6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대만 포모사플라스틱그룹 계열사인 대만 난아플라스틱, KHI와 대만 현지 전력사업 강화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LS일렉트릭

주력으로 하는 포모사플라스틱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최근 전력 솔루션 사업을 육성하면서 기존 배전 제품에서 초고압 송전 설비와 전력망 안정화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함께 출자하는 KHI는 포모사그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유망기술에 투자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자회사다. LS일렉트릭의 사업 경쟁력과 글로벌 전력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해 이번 합작법인에 투자했다.

합작법인이 공략할 대만 시장은 탄소 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친환경 전력설비와 ESS,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력망 구축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로히트 프라사드 신임 CEO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보스턴다이나믹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며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대화형 AI와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범용인공지능(AGI) 분야의 기술 리더인 로히트 프라사드(사진)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프라사드 CEO는 아마존에서 음성 기반 AI 플랫폼 알렉사 개발 초기부터 핵심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이후 알렉사 및 AGI 부문 수석부사장 겸 수석과학자로서 아마존의 노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총괄하는 등 AI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프라사드 CEO의 합류로 로보틱스와 AI의 융합을 가

속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에 첨단 AI를 결합해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과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사드 CEO는 “첨단 AI와 로보틱스를 융합해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로보틱스의 적용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피지컬 AI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